

서울, 계획대로 … 국제, 체육관 제외하면 ‘계획설계’ 단계

SPACE21 중간 점검

박기윤 기자 kyoony7230@knu.ac.kr
김수진 기자 sujin_kim14@knu.ac.kr

어느덧 신축건물이 눈에 띠게 높이 올라가고 있다. 건물이 점점 제 형상을 드러냄에 따라 구성원들의 공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서울, 국제캠퍼스의 SPACE21 사업 전반을 살펴본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현재 행복기숙사와 간호대학관, 이과대학관, 한의대학관이 건설 중에 있다. 5월 말 현재 행복기숙사의 공정률은 35.8%, 전체 사업 공정률은 24.4%를 보이고 있다. 서울캠퍼스 SPACE21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은 “행복기숙사는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1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포함한 완공일을 가능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외의 전체 공사도 내년 말까지 완공해 2017년 2학기부터 해당 단과대학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복기숙사가 완공되면 서울캠퍼스는 총 926명의 학생이 추가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캠 행복기숙사 내년 학기 입사 전체 공정률 24.4%

한편, 교시팀에서 노천극장을 잇는 동선이 기존 헐떡고개에서 숲길로 변경된 데 대해 장 팀장은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 구성원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불만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길이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공사도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성원들이 미래를 위해 조금만 참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 팀장은 서울캠 SPACE21 공사가 완료된 후 이전하게 되는 간호대, 이과대, 한의대의 기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 현재 신축 중인 종합체육관은 차질 없이 준공될 예정이지만, 기존에 계획됐던 신축 및 개·보수, 전면 리모델링 예정 건물의 경우에는 착공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캠 SPACE21 건설사업단에 따르면 작년 1월에 착공한 종합체육관은 오는 201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2016년 5월 중순 현재 기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이 건설중에 있다. 5월 기준 공정률은 61.7%이다

※SPACE21 건설사업단 홈페이지

준 약 61.7%의 공정률을 보이며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12월엔 옥상 층 골조 공사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설계 변경 등의 문제로 착공이 미뤄진 신축 공과대학관, 외국어대학 교수연구동, 동서의학대학관 등의 건물들은 현재 ‘계획설계’ 단계까지만 진행돼 있는 상태다. 앞으로 중간설계, 실시설계 및 인허가 단계까지 거쳐야 하는데다, 구성원 소통이나 다양한 대내외 변수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착공 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이 국제캠 SPACE21 건설사업단 측의 입장이다.

또한, 개·보수 및 전면 리모델링이 예정된 현 공과대학관, 외국어대학관, 생명과학대학관, 국제·경영대학관의 경우에도 종합체육관 완공 이후 착공될 계획이지만, 구성원 간의 공간효율화 및 재배치 논의 과정을 마무리 짓지 못해 구체적인 공사 계획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제캠 SPACE21 건설사업단 측은 “필요한 공간, 디자인 등 구성원 소통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불필요한 공간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다른 건설 계획도 늦어지게 된 것”이라

며 “종합체육관 완공 이후 R&D 단지 조성 등 캠퍼스 마스터플랜 차원의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곧 더욱 발전된 국제캠퍼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대학관, 외대학관 등 ‘계획설계’ 단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어지는 문제 해결에는 양 캠퍼스 모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사 중 소음문제에 대해 서울캠 SPACE21 건설사업단 측은 “(양 캠퍼스 모두) 방음벽을 높이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정 행사가 겹치는 시 간대에는 공사를 잠시 중단한다”며 “학생회, 학교 측과 소통하며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 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몰리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문제 역시 주기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분진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살수차를 동원해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의 분진을 세척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야광등도 추가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양 캠퍼스 구성원은 공

사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서울캠에서는 공사가 끝난 후 밤에 크레인의 흔들림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구성원들이 공사가 끝나면 크레인을 고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서울캠 SPACE21 건설사업단 측에서는 “크레인을 고정하게 되면 갑작스런 강풍에 크레인이 베터지 못하고 쓰러질 염려가 있어 일부러 고정시키지 않았으며, 이를 고정시키는 것은 오히려 법률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연스럽게 흔들리다 보면 공사 현장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평소에는 야간에 이동할 범위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돌려놓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캠 내 일부 구성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한다. 우리신문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차별’이란 낙태임을 사용한 한 독자는 “서울캠은 원안대로 다 지으면서 국제캠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약속한 원안을 지키지 않고 재설계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8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면서 진척된 것이 전혀 없으며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또 외국어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A양은 “소문만 무성하고,

설계안까지 나왔으면서 왜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강의 수 부족과 같은 학내 다른 이슈들이나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제캠 SPACE21 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서울캠퍼스의 행복기숙사의 경우 우사학진흥재단의 우사학진흥기금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SPACE21 사업과 동일하게 보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제외한다면, 양 캠퍼스 모두 같은 규모의 건설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국제캠 캠퍼스 내에 예술디자인대학관 및 제2기숙사 등 서울캠퍼스 보다 더 많은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제캠 공사 차질,

예산 확보 아닌 대내외적 소통문제

또한 총 사업비 중 국제캠에 배정된 약 916억 원의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라 학내구성원의 지적에 관해서는 “예산은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예산 확보 문제보다는 기타 대내외적 소통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SPACE21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는 예산 집행 및 기채 상환 등의 문제다. 현재 건설 진행 중인 양 캠퍼스 SPACE21 사업의 총 (예정)건축비는 약 1,175.2억 원으로, 이 중 272.8억 원을 2015년 말까지 집행했다. 2016년 이후 집행이 예정된 건축비는 2016년 약 557.5억 원, 2017년 약 344.9억 원이다. 이 재원 마련에 대해 재정경영원 측은 “기체 360억 원을 포함해 현재 약 544.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편의시설 장기 임대, 제1금융권 기채, 자산 유동화, 기부금 유치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캠 내 일부 구성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한다. 우리신문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차별’이란 낙태임을 사용한 한 독자는 “서울캠은 원안대로 다 지으면서 국제캠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약속한 원안을 지키지 않고 재설계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8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면서 진척된 것이 전혀 없으며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또 외국어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A양은 “소문만 무성하고,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 대 학 교 국 제 교 육 원

-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6. 07. 04.(월) ~ 2016. 08. 12.(금)
 - 접수기간 : 2016. 06. 01.(수) ~ 2016. 06. 29.(수)

- Level Test
 - 영어회화 : 06. 28(화), 06. 29(수) 17:30
 -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회화 : 06. 28(화) 17:15

● 강의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07:45 영어/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 초급2 Ted Talk	영어/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 초급1 Ted Talk	영어/일본어/중국어
08:45	중국어 초급1		중국어 초급1	
10:20			必勝(빠숑) 중국어~ 중국어 프리토킹	必勝(빠숑) 중국어~ 중국어 프리토킹
11:00				
16:30	Cantando	독일어초급1	Video-debate	Cantando
17:00			독일어초급1	Video-debate
18:00	스페인어 초급2	베트남어 초급1	독일어 초급1	스페인어 초급2
18:30	베트남어 초급1	프랑스어 초급1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초급1
19:00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초급2	프랑스어 Book Club	영어/ 일본어/ 중국어
19:20	스페인어 초급1	베트남어 초급2	프랑스어 초급1	프랑스어 초급2
19:30	독일어 초급4	스페인어 중급2	독일어 초급4	스페인어 중급1
19:50	스페인어 중급1		스페인어 중급2	
20:00				
20:50				베트남어 초급2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2 http://www.iae.ac.kr

2016학년도 2학기 국제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석·박사 과정〉

- 모집 분야 : 국제통상협력학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경영학과
-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 박사과정 00명 (국제개발협력학과에 한함)

● 지원자격

- 석사과정 : 국내 · 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박사과정 : 국내 · 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전형방법

- 국내거주자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턴부(40%), 영어작문시험(20%)

- 해외거주자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턴부(60%)

- ※ 해외거주자 지원자 인턴부는 전화로 진행하며, 일자는 별도 통지

●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6. 06월13일(월) ~ 06월 26일(일) 17:00 (우편 소인기준)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국내 거주자 인턴부 및 영어작문시험 : 2016년 07월 09일(토) 시간 홈페이지에 추후공지

- 해외거주자 인턴부 : 2016년 07월 05일(수) ~ 07월 08일(금) 기간 중 개별안내 (예정)

- ※ 모든 서류전형이 접수된 지원자 대상입니다. (국내거주자 경우 영어작문시험 포함)

● 제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자소서에서 양식 포함)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평균 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 주전서 2인 각 부속 (국문2장, 자주양식)

- 출입예정증명서 부 (학위등록번호 기재)

- 반영학점 사전 평가 (3cm*4cm)

- 전형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접수 시 온라인 입금)

- ※ 입금계좌 : 하나은행 906-910002-76604

- ※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 소지자 기산점 부여, 성적표 1부

- 국문/영어 번역 공증서(출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영문 학위연구계획서(자유양식, 박사과정 지원자에게 한함)

- 영문 이력서 (자유양식, 박사과정 지원자에게 한함)

● 원서접수

- E-mail 접수 : gsp@knu.ac.kr

- 우편접수 : [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에 '입학원서 재증' 제자리]

- 행정실 근무시간 : 평일 09:00 ~ 17:30 / 토요일 09:00 ~ 16:00

- 입학원서 제작 및 제출 : 2016년 06월 26일(일) ~ 07월 08일(금)

- 입학원서 제작 및 제출 : 2016년 06월 26일(일) ~ 07월 08일(금)

- 입학원서 제작 및 제출 : 2016년 06월 26일(일) ~ 07월 08일(금)

- 입학원서 제작 및 제출 : 2016년 06월 26일(일) ~ 07월